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의 성매매문제와 사회적 영향력 Prostitution and Social Power in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 *Unnie*

계운경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Woon-Gyoung Ghe(docu-i@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니>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담론 중 ‘영화의 정치성’, ‘투쟁의 도구로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논쟁’, ‘<언니>의 반성매매를 위한 내러티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니>를 통한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에 관해 진단한다.

■ 중심어 : | <언니> | 성매매 | 성노동 |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 참여적인 관객성 | 인식변화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 *Unnie* dealing with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Not only does it discuss profuse discourse about *Unnie* such as politics of the film,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 as a tool of struggle, an organized narrative for anti-prostitution and social power of the film but also it deals with prostitution matters related with the film such as prostitute rights, anti-prostitution and pro-prostitution. And it diagnoses possibilities of modifying audiences' recognition and participatory spectatorship with *Unnie*, conducting a survey of 202 undergraduates.

■ keyword : | *Unnie* | Prostitution |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 | Participatory Spectatorship | Changing Recognize |

I. 서론

<언니>(계운경, 2007)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설립된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여성가족부(2005)와 부산국제영화제(2006 AND동의편드시네마)로부터 공동지원금을 받았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Q채널 및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상영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언니>는 극장 개봉 상업영화와 비교하여

많은 수의 관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 소외되어 왔던 성매매문제를 주제로 관객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합법과 불법으로 참여하게 대립된다. 합법화 진영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하여 성매매여성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화 진영은 성매매가 여성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화 진영은 ‘성노동’, ‘매춘’, ‘매매

접수일자 : 2015년 10월 19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1월 30일
교신저자 : 계운경, e-mail : docu-i@hanmail.net

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불법화 진영은 '성매매'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로 인정한다. 본 논문은 <언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걸쳐 용어를 '성매매'로 통일한다. 물론 인용에 따라서 매춘, 매매춘, 성노동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성매매의 합법과 불법 중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국내 성매매 관련 영화는 1970년대 '호스티스영화'에서 출발한다. 호스티스영화는 당시 향락산업의 변창과 정치적인 영화에 대한 엄격한 검열의 반작용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별들의 고향>(이장호, 1974),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 1975), <티켓>(임권택, 1986), <매춘>(유진선, 1988), <노는계집 창>(임권택, 1997) 등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들은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욕망의 담론, 성적 대상 혹은 주체로서의 여성, 섹스와 사회구조적 모순의 관계[1],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이나 탈정치화 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 주어 여성담론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영화에서 성매매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대상, 성적 타락, 수동적, 타자화된 인물로 그려지는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극영화와 달리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서 제시되는 성매매여성들은 확연히 다르게 재현된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서 성매매와 관련하여 몇 편이 제작되었지만, 관객들에게 성매매를 인식시키고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성매매관련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는 <언니> 외에 <레드마리아1, 2>(경순, 2011, 2015), <유예기간>(김경목·기진, 2014), <마마상>(김일란·조혜영, 2005), <나와 부엉이>(박경태, 200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다큐멘터리들이 <언니>와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로 대립된다.

<언니>는 반성매매 관점에서 관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이처럼 영화가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는 영화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는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핵심 전달력이 크며[2]', '매체의 대중성과 강력한 집단성으로 상상적 공동체의 구성에 깊숙이 개입하

는 특징[3]'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된다. 환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영화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주입하여 사회가 재생산되는데 기여하게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영화의 자기반영성을 통해 지배시스템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권을 선전할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반대진영에서는 직·간접적인 정치투쟁의 도구로 영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역시 관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투쟁의 도구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정치, 미학, 상업성 등 그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하는 영화라도 그 중심에는 '관객'이 있다. 그러나 영화가 관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우며, 그 시도조차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제작된 <언니>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영화의 정치적 역할', '정치투쟁의 도구로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논쟁', '<언니>의 내러티브 구성방식' 등 <언니>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담론들에 관해 먼저 논의한 다음, 202명을 대상으로 <언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participatory spectatorship)을 진단함으로써 <언니>의 사회적 영향력을 짚어낸다.

II. 영화의 정치성과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를 짚어보면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영화를 강력한 교육수단으로 본 레닌(Lenin)은 "모든 예술 가운데 우리에게겐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4]"고 선언했고, 히틀러(Adolf Hitler)는 일찍이 영화가 그 무엇보다 대중을 설득하기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인식하였다. 카스트로(Fidel Castro) 역시 세력을 장악한 직후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제작하는 '쿠바영화예술 산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영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5]. 우리나라도 제5공화국 때 뉴스영화를

정권선전용으로 활용하고, 3S(Sex, Sports, Screen) 정책을 만들어 섹스영화의 양산을 가속화시켜 정치로부터의 관심을 막고자했다. 이처럼 지배세력이 권력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영화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은 영화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할리우드영화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선전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포섭한다. 자연스럽게 무의식을 파고들기 때문에 관객은 문제의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를 영화의 '내적인 정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체제를 은밀하게 관객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로 장르영화에서 드러나는데, 서부극은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적 이념 등을 탄생시켰다. 통속극은 여성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결혼과 가족이라고 암시한다. 또한 전쟁, 액션, 뮤지컬 등은 부드럽게 지배이념에 대해 선전한다[6]. 할리우드 장르영화는 정치선전영화와 같이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화나 동화처럼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은밀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며, 이는 지배권력의 유지·재생산을 돕는다. 그러나 할리우드의 고전적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지배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영화 또한 제작된다. 특히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프랑스의 누벨바그, 미국의 뉴 아메리칸 시네마, 대만의 뉴웨이브 등을 통해 나타난다.

지배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화를 이용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권력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이에 적극적이다. 그리어슨(John Grierson)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목적의 다큐멘터리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시작은 '서울영화집단'의 <관놀이 아리랑>(1982)과 <전야제>(1982),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을 때까지: 구로 항쟁의 진상을 밝힌다>(이상빈, 1987)와 <상계동 올림픽>(김동원, 1989)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사회에 대한 불합리, 소외계층의 피해에 대한 고발, 권력자들의 비리, 공권력에 대한 저항 등 공적영역을 다룬다. 물론 소소한 개인의 일상이나 생각을 담아내는 작품들에서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장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작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두 계열 중에서 '지배담론에서 배제된 사회적 타자들을 대변하고 이들을 주체로 저항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비디오 액티비즘', 즉 정치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출발한다[7]. 이러한 경향은 여성, 장애인, 동성애, 청소년 문제 등 주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언니> 역시 확장된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관객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는 형식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서사전개의 큰 축은 가해자인 권력자와 피해자인 약자로 나뉜다. 감독은 약자의 편에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관객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설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이다. 물론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담아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엄숙한 분위기로 일관한다. 셋째, 내레이션은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서사구성 요소인데, 주로 감독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방송 다큐멘터리의 경우 제3의 해설자가 등장하는 데 반해,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은 주로 감독이 직접 맡는다. 넷째, 인터뷰 또한 내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된 서사구성 요소이다. 인터뷰는 중립적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다섯째, 음악의 역할이다. 음악은 주류영화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쇼트나 씬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관객의 몰입과 동화 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언니>는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 속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점들이 있다. 이분법적 서사구성 보다는 초지일관 반성매매의 정당성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성매매근절과 반대편에 있는 성노동이나 공장, 혹은 성매매 한 남성들을 비롯한 성매매 찬성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내레이션으로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거나, 음악을 통해 관객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유사한 특징은 인터뷰와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주된 서

사요소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반성매매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식은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III.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두 가지 시선

본 연구자가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명이 TV뉴스나 시사프로그램, 53명은 영화, 그 다음으로 인터넷, 잡지 등의 순으로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는 성매매에 대한 전부가 된다. TV는 대부분 범죄로서의 성매매를 다루고, 영화는 성매매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성매매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엇보다 복잡한 논의의 층위가 자리한다. 정치인, 학자, 활동가 등 성매매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내려 하지만 늘 해결불가능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고 만다. 그래서 성매매를 경제적, 사회적, 정신분석적, 통계학적, 종교적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하며 성매매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성매매는 1916년 일본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공창제를 확립하면서 정착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한다. 금지주의는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1970년대 초性病 진료소를 만들어 기지촌 여성을 관리한다. 심지어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를 버는 애국자들’, ‘민간 외교관’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1973년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생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때 문교부장관은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한다[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금지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관리 아래 성매매는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사회에서 가시화 된 것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이다.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북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면서 촉발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문제를 인권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성매매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1920년대부터 있어왔다. 1927년 사회주의 여성운동계와 기독교 여성운동계가 결합한 ‘근우회’와 해방 후 좌익여성단체 ‘조선부녀총동맹’은 공창제 폐지를 위해 활동한다. 1970-80년대 기생관광반대운동, 1980년대 후반 쉼터운동, 1990년대 윤방법개정운동으로 명맥이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다. 이때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가시화되는데, <언니>는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며 성매매 근절에 동참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언니>와 같이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성노동 진영은 매춘이 노동의 일종이며 매춘노동을 억압하는 것은 매춘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9]. 그래서 성매매를 정식직업으로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 등 일반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법적 권리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10].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행위의 강제와 자발의 차이로 이어진다. 성매매 반대진영은 성판매여성이 “성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할 수 없으며 이를 구분했을 때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에 대해 사회와 법이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노동 진영은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전략이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피해자로 규정된 여성들의 주체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11]. 또한 성판매여성들이 직업을 스스로가 ‘선택’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으며, ‘성노동자’라는 이름을 부여할 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사회적, 계급

적 위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두 진영모두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성매매 반대진영은 성매매여성이 탈성매매를 하게 한 후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성노동 진영은 성노동자로서 그 대로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IV. <언니>의 반성매매 내러티브

<언니>는 관객의 인식을 변화시켜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제작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다. 성매매에 무관심했던 관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여겼던 관객들이 사회악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한다. <언니>에는 형식이나 스타일을 고려한 미학적 탐구 대신, 관객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 여성 인권유린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하면서 <언니>는 시작된다. 환향녀, 기생,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성매매, 기생관광 등이 차례로 나열된다. 이는 성매매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언니>의 내용은 크게 탈성매매여성과 그들을 돕는 반성매매활동가의 서사로 나누어진다. 탈성매매여성과 관련해서는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 성매매집결지에서의 경험, 업주와의 관계, 자활 등이 중심이고, 반성매매활동가와 관련해서는 지인들의 편견, 자원활동, 가족들의 염려, 직업으로서의 불안정성, 아웃리치, 반성매매캠페인 등이 중심이다.

<언니>는 극영화처럼 성적대상이나 낭만적으로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며, TV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범죄, 도덕적인 관점, 필요악, 혹은 중립적 시선과도 다르다. <언니>는 영화나 TV에서 듣지 못했던 탈성매매여성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 지금까지 대중이 접하던 성매매는 성매매여성들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언니>는 탈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의 관점으로 바꿈으로써 성매매 불법화를 정당화시킨다. 이를 통해 어떤 여

성이든지 성매매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매매는 윤리나 도덕성 결핍에서 오는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성매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중요한 것인데, 그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빈곤한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터뷰가 여러 차례 제시되는데, 중학교 때 강간을 당하고 퇴학 맞은 여성, 계모에게 구박받고 가출한 여성, 폭력남편과 이혼 한 여성 등 대부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빈곤과 관련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초지일관하던 비자발성과 피해자화에 대한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터뷰가 제시되기도 한다. 한 탈성매매 여성은 이런 말을 한다. “어릴 때부터 난 단란주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동생이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마시술소 들어갔거든요.” 또 반성매매활동가 이윤미는 이런 말을 한다. “내 내담자 중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부르주아지, 음악을 했는데... 이 언니가 업소를 가게 된 배경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맛있는 과일안주에 양주 먹고, 그리고 오빠들이 너 예쁘다고 계속 얘기해주는 거, 자기 1년 동안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이 역시 주체적 선택으로서 성매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상황이 언제든지 ‘비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장하는 바를 정해놓고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언니>는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형식과 닮아 있다. 내레이션과 음악은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뷰와 대화, 에피소드, 자막 등을 통해 관객을 설득하는 계몽적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언니>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입장만 제시하고, 성노동 진영, 성매매 여성, 성매매를 한 남성, 업주 등 <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반대편 논의는 배제하고 있다. 또한 완월동이나 다방 같은 집결지 피해여성들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고, 고급 룸싸롱, 인터넷이나 유사성매매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있지 않다. <언니>는 성매매의 한 부분을 통해 불법화의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에

관객이 성매매문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매매 합법화의 입장이나 그 외의 다양한 입장을 제시한다고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담더라도 <언니>의 내러티브 전개는 성매매 불법화를 뒷받침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V. 참여적인 관객성과 관객의 인식변화

성매매에 대해 갖는 인식 중 영화가 TV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는 영화의 '관객성'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의 '관객성'은 관객을 둘러싼 조건과 반응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관객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보면, 시작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6]하여 '관객의 정치성'과 '여성 관객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인종, 계층의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아우르는 문화정치학적 관점[13], 욕망의 순환을 강조한 정신분석학적 관점[14], 더 구체적으로는 한 시대와 사회의 관객성의 구성에 관여하는 요인, 영화 관람과 소비가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맥락, 관람이 이뤄지는 장소·극장의 공간적 요인, 영화텍스트의 특징, 관객의 영화매체에 대한 태도와 관습, 전통적인 문화관습과 양식, 영화 관람을 규제하는 공적이고 외부적인 힘들,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관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들로 확장하기도 한다[15]. 이처럼 관객성 연구는 관점에 따라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영화에서 관객은 수동적일 수 있고, 생산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작품과 텍스트의 대립을 통한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을 주장한다[16]. 작품의 개념 안에서는 저자만이 생산자이며 독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바르트의 텍스트 개념을 작품에 대입하면 독자는 비로소 의미 생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주체가 된다[17]. 이를 영화로 옮기면 영화 텍스트 속에는 생산자와 작품뿐 아니라 관객

또한 포함되며, 관객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 작용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레비(Pierre Levy)는 '참여적인 관객성'을 통해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존의 텍스트 중심적인 영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행위자로서 관객의 특성을 설명한다[18]. 이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관객성에 대한 것으로 영화의 실질적 효력은 관객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레비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집단지성에서 '성찰'(reflexion), '결정'(decision)과 더불어 '실천'(pratique)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실천의 힘은 성찰과 결정의 과정에 이어 개인이 내면에 부여한 기억, 비관들을 실제의 행위로 이어지게 한다[19]. 집단지성의 예로 <도가니>를 들 수 있는데, 개봉 후 관객은 인터넷공간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명운동을 펼치며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켜 마침내 '도가니법' 제정과 같은 큰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 즉 <도가니>는 대중적 전략으로 관객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참여적인 관객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언니>와 <도가니>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 독립영화/상업영화, 다큐멘터리/극영화, 다큐멘터리적 수사/대중적 표현방식 등은 두 영화의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니>의 예가 보여주었듯이 영화는 관객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언니> 역시 그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없다.

<언니>의 내러티브는 성매매 불법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관객들은 쉽게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언니>는 <도가니>가 증명했던 것처럼 관객들의 인식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 사실 영화가 관객의 인식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한 국내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이 정치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O1-S-O2-R 모델을 중심으로」, 「인권영화 관람이 인권의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O1-S-O2-R 모델의 적용」, 「기획된 영화 감상이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데, 연구결과는 영화가 관객의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다. 영화와 청소년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영화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 한정적인 특정 경우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온 결과인지, 혹은 비행을 야기할 영향력이 더 큰 기타 요인들과 무관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6]”고 밝혔다. 이처럼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영화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화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니>가 성매매에 대한 관객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비단 <언니> 뿐 아니라 주제의식이 뚜렷한 극영화나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I. <언니> 설문조사 실험

<언니>를 통한 관객들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에 관해 진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을 적지 않았거나 백지로 제출한 19명을 제외한 202명(여학생 125명, 남학생 7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언니>를 감상하기 전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상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언니> 관람 후 성매매(매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가?

	여(%)	남(%)	합(%)
① 변화하였다	62(48.8)	35(46.7)	97(48.0)
② 변화하지 않았다	39(30.7)	22(29.3)	61(30.2)
③ 모르겠다	21(16.5)	12(16.0)	33(16.3)
④ 관심없다	0(0)	3(4.0)	3(1.5)
⑤ 기타	2(1.6)	0(0)	2(0.9)
⑥ 무응답	3(2.4)	3(4.0)	6(3)
총합	127(100)	75(100)	202(100)

(2) 성매매(매춘) 불법과 합법 중 무엇을 지지하는가?

	전			후		
	여(%)	남(%)	합(%)	여(%)	남(%)	합(%)
①불법화	62(48.8)	16(21.3)	78(38.6)	98(77.2)	37(49.3)	135(66.8)
②합법화	23(18.1)	21(28)	44(21.8)	1(0.8)	6(8)	7(3.5)
③모르겠다	35(27.6)	20(26.7)	55(27.2)	25(19.7)	23(30.7)	48(23.8)
④관심없다	5(3.9)	17(22.7)	22(10.8)	1(0.8)	6(8)	7(3.5)
⑤기타	2(1.6)	1(1.3)	3(1.5)	1(0.8)	1(1.3)	2(0.9)
⑥무응답	0(0)	0(0)	0(0)	1(0.8)	2(2.7)	3(1.5)
총합	127(100)	75(100)	202(100)	127(100)	75(100)	202(100)

(1)과 (2)는 <언니>가 관객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다. (1)번 질문에 ‘변화하였다’가 48%이고, ‘변화하지 않았다’가 30%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번을 보면 ‘변화하지 않았다’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많은 수가 <언니>를 보기 전에도 이미 성매매의 불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보기 전후의 큰 인식변화를 알 수 있다.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8.6%에서 66.8%로 늘었고,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약 21.8%에서 3.5%로 줄었다. 특히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학생 48.8%에서 77.2%로 늘었고, 남학생 21.3%에서 49.3%로 늘었다.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대답은 여학생 18.1%에서 0.7%로, 남학생 28%에서 8%로 줄었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관람 전후 여전히 비슷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관심없다’를 표시한 남학생이 22.6%에서 8%로 낮춰졌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언니>가 성매매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3)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매매(매춘) 불법화를 위한 인터넷 서명, 반성매매자원활동, 반성매매활동가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전			후		
	여(%)	남(%)	합(%)	여(%)	남(%)	합(%)
①하겠다	27(21.6)	7(9.3)	34(16.8)	60(77.1)	14(18.6)	74(36.6)
②안하겠다	22(17.6)	24(32)	46(22.7)	13(0.7)	23(30.6)	36(17.8)
③모르겠다	61(48.8)	18(24)	79(39.1)	44(19.6)	23(30.6)	67(33.1)
④관심없다	15(12)	26(34.6)	41(20.3)	10(0.7)	14(18.6)	24(11.8)
⑤기타	0(0)	0(0)	0(0)	0(0)	0(0)	0(0.9)
⑥무응답	2(1.6)	0(0)	2(0.9)	0(0)	1(1.3)	1(0.5)
총합	127(100)	75(100)	202(100)	127(100)	75(100)	202(100)

(4) 기회가 주어진다면, SNS나 친구, 지인, 가족 등에게 성매매가 불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전			후		
	여(%)	남(%)	합(%)	여(%)	남(%)	합(%)
①하겠다	18(14.1)	5(6.8)	23(11.3)	53(41.7)	10(13.3)	63(31.2)
②안하겠다	30(23.6)	25(33.3)	55(27.2)	18(14.1)	25(33.3)	43(21.3)
③모르겠다	60(47.2)	23(30.6)	83(41.1)	45(35.4)	25(33.3)	70(34.7)
④관심없다	14(11.2)	22(29.3)	36(17.8)	9(7.1)	14(18.7)	23(11.4)
⑤기타	4(3.15)	0(0)	4(2)	2(1.6)	0(0)	2(1)
⑥무응답	1(0.7)	0(0)	1(0.5)	0(0)	1(1.3)	1(0.5)
총합	127(100)	75(100)	202(100)	127(100)	75(100)	202(100)

(3)과 (4)번 질문은 <언니>를 통한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질문이다. (3)번은 성매매불법화를 위한 직접적인 참여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고, (4)번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매매불법화에 참여할 가능성을 알기 위한 것이다. (3)번 질문에 ‘하겠다’가 16.8%에서 36.6%로 증가했고, ‘안하겠다’는 22.2%에서 17.8%로 감소했다. ‘모르겠다’는 관람 전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신 ‘관심없다’는 의견은 20.3%에서 11.8%로 감소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식변화가 큰데, ‘하겠다’는 남학생 9.3%에서 18.6%로 증가한 데 비해, 여학생은 21.6%에서 77.1%로 크게 증가했다. ‘안하겠다’는 여학생 17.6%에서 0.7%로 크게 감소한 데 반해, 남학생 32%에서 30.6%로 별 차이가 없다. (4)번에서 ‘하겠다’는 11.3%에서 31.2%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안하겠다’는 27.2%에서 21.3%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41.1%에서 3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모르겠다’와 ‘관심없다’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간접적으로 성매매 불법화에 참여하겠다는 (4)번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3)번 의견보다 보기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설문참가자들이 간접적인 참여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VII. 결론

성매매 반대진영에서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성노동 진영에서는 <언니>의 일방적인 주장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관객의 시각을 오히려 더 단순·편협하게 만든다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주장 중 그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매매문제를 공공의 장에 가시화하여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반성매매와 성노동에 관한 치열한 담론의 경합을 통해 성매매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영화나 TV와 같은 영상매체는 이러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과 참여적인 관객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곧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반성매매와 성노동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언니>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담론에 관해 논의했다. 첫째, 영화와 정치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영화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두 진영 모두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출발하되, 성매매 반대진영은 성매매여성이 탈성매매를 하게 한 후, 또 성노동 진영은 성노동자로서 그대로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셋째, 정치적 투쟁의 도구에서 출발하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와 <언니>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언니>는 형식적으로 공적영역의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반성매매를 위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을 통해 영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짚어볼 수 있었다. 다섯째, <언니>의 사회적 영향력을 진단하기 위해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니>가 성매매에 대한 관객의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언니>는 관객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의 한계 또한 발견된다. 특히, 자기보고식 설문이라는 점, 교육받는 것이 익숙한 대학생이 설문대상이라는 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보고된 설문이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들의 발견은 후속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 보다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국내학술 분야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영화연구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성매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희소성을 가진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1] 김금녀, “1980년대 한국영화의 성적 욕망 담론에 관한 연구-〈애마부인〉<뽕〉<감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호, p.8, 2000.

[2] 이선자,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7권, p.81, 2007.

[3] 이충직, 주진숙, “식민지 아시아 국가들의 영화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대만 뉴 웨이브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16호, p.7, 1997.

[4] D. Bordwell and K. Thompson, *영화예술*, 주진숙, 이용관 역, 이론과실천, p.558, 1993.

[5] T. Clark,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이순령 역, 예경, pp.14-114, 2000.

[6] J. Hill and P. C. Gibson, *영화연구*, 안정효 외 역, 현암사, pp.141-412, pp.241-242, 2004.

[7] 남인영, “타자들의 ‘목소리’: 한국 여성주의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의 사운드와 이미지의 관계,” 영상예술연구, 제13호, p.114, 2008.

[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p.59-71, 2002. 재인용

[9] 고경갑희,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경제와사회, 제81호, p.113, 2009.

[10] 유숙란,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제1호, pp.12-16, 2008.

[11] 김경미,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여성이론, 제13호, p.67-69, 2005.

[12] 이하영,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4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운동의 지형도 읽기,” 여성이론, 제23호, pp.166-67, 2010. 재인용

[13] 정문영, “아틀 푸가드의 관객성의 정치성-The Road to Mecca,” 현대영미드라마, 제14권, 제1호, pp.246-247, 2001.

[14] R. Stam, *어휘로 풀어 읽는 영상기호학*, 이수길 외 역, 시각과언어, p.276, 2003.

[15] 유선영, “초기 영화의 문화적 수용과 관객성-근대적 시각문화의 변조와 재배치,” 언론과사회, pp.12-13, 2003.

[16] R. Barthes,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동문선, pp.34-35, 1997.

[17] 안영순, “서사담론의 변화와 관객성: 소설과 영화 ‘모던보이’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연구, p.13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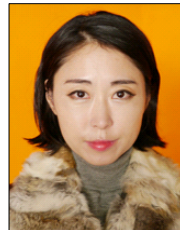
[18] P. Levy, *디지털시대의 가상현실*, 전재연 역, 궁리, p.32, 2002.

[19] 최항섭,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제3호, p.289, 2009.

저 자 소 개

계 운 경 (Woon-Gyoung Ghe)

정희원



- 1999년 6월 : 뉴욕시립대학교(영상제작 석사)
- <팬지와 담쟁이>(2000), <나의 선택, 가족>(2004), <언니>(2007) 등 다큐멘터리 연출
- 2009년 2월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예술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극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미학, 사회학